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 박 계 란**

조 교 수 이 지 민***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

The Doctoral Course : Park, Kei-Ran

Assistant Professor : Lee, Ji-Mi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were 177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rom 1st to 6th grade in DG are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interests in school and the whole-school adjustment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types 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adjustment, social supports, and school life adjustment. 3) Of all variables, teachers' support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terests in school and the whole-school adjustment, but friends' support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compliance of school rules.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efforts from multi levels, such as schools, teachers, and peer groups, for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 가정 아동(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 적응 (multicultural adjustment),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justment)

I.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정보공유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고수해온 한국사회도 이주민과 혼혈인의 증가로 점차 다문화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한 가족체계의

증가로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이 생겨났으며, 특히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과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 국제결혼건수는 총 혼인건수 327,715건 중 36,204건으로 1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28,163건(8.5%)으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8,041건(2.4%)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2008년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18,769명으로 2007년 13,445명에 비해 39.6%가 증가했다. 그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 수는 15,804명으로 전체의 84.2%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박계란 (E-mail : eggpark55@nate.com)

*** 교신저자 : 이지민 (E-mail : ljimin@ynu.ac.kr)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향후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는 이들에게 더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의 부재는 이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 급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2005년을 전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현황을 알리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김경란, 2007; 백종진, 2008; 서정혜, 2009; 신효선, 2008; 이운호, 2009; 홍영숙, 2008)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으며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양육태도, 가치관의 혼재로 아동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집단따돌림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일보, 2009). 또한 국정감사자료(2008)에 따르면, 취학연령대인 다문화 가정 자녀 24,877명 가운데 6,089명(24.5%)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 전체 18,691명 중 2,887명(15.4%), 중학생은 3,672명 중 1,459명(39.7%), 고등학생 2,504명 중 1,743명(69.6%)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반 가정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치(매일경제, 2009)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육에서 소외되는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의 건강한 적응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시기에 학교부적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중·고등학교시기에 또래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학교는 아동에게 있어 가정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새로운 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홍정미, 2008). 특히 초등학교 시기인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인기의 사회적응 및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부모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사회적 특성(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등이 연구되어 왔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본 연구(설동훈, 2005; 안은미, 2007; 오성배, 2005; 정현영, 2006; 한정애, 2009)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 이중언어 등의 다문화적 특성과 남다른 외모, 언어능력 부족,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학습 및 친구관계의 어려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빈번한 학교부적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가족, 또래 그리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부모 혹은 가족과 관련된 특성은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다(안은미, 2007; 정현영, 2006; 제갈종기, 2007; 홍정미, 2008). 아동은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고,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녀-부모관계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옥희,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은미, 2007; 정현영, 2006), 가족 요인에 관한 연구(제갈종기, 2007; 홍정미, 2008)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는 물론 학교의 규범을 준수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가족은 다른 어떤 지지체계보다 중요한 지지체계로서 의미가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미, 2009; 박은혜, 2010; 서정혜, 2009; 이영주, 2007; 전푸르나, 2010). 즉,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할수록, 학급 내에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 지지적,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서 볼 때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적응성, 가족 및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원, 지지유형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가정에서의 다문화 적응과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질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아동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주로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것에 비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학교로의 이동은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발달적 과도기이며, 초등학교에서 좋은 출발을 하게 되는 아동은 차후의 학업성취와 학교과업수행을 평가함에 있어 초기에 힘들어하는 아동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쉽다(Entwisle & Alexander, 1998; Schweinhart et al., 1993; 정운정, 2007 재인용).

이처럼 학교에서의 적응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의 발표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의 정서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은 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김순중(2007)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 아

동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외모가 다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성장하여 심리·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또래관계 문제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부적응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더욱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문화 적응과 주요타자(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

2. 다문화 적응

다문화 적응이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이중언어와 문화에 대한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다문화화적 특성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두 개의 언어와 문화,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다문화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해 자기문화의 관점을 강조하거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충돌이 생김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높이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들 자녀들은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살아온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에 또래의 아동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가정 내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다른 이중문화를 경험하므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서현·이승은, 2007).

또한 단일민족을 중시해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한국에서는 이주여성들에게 빠른 적응을 위해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본래의 문화를 사회와 가정에서 노출시키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들의 자녀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바르게 교육시키기란 힘든 일이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 자녀들이 외국계 부모의 문화를 경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미숙할 경우, 아동의 한국어 습득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주어 발달단계에 따른 언어습득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학령기에 들어가서도 학습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짐으로써 사회관계의 부적응과 학습부진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신효선(2007)과 홍정미(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남다른 외모, 언어능력 부족, 다문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학습 및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겪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

동장에 등 정서장에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은미(2007)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적응으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특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론(2010)의 연구에서도 이중문화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1999)은 다문화 적응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가정과 학교의 상호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먼저 어머니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존중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적응은 학교생활적응뿐 아니라 가족문화, 인간관계 나아가 지역문화 속에서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이영주, 2007),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본래 문화와 그 사회의 주류문화 습득과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적,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맺음은 서로에 대한 지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관심, 이해, 도움 등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학습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율성을 제공받는 것이다(문은식, 2005). 또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지원은 누구로부터 제공받는가에 대한 것으로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Thoits, 1982), 그러한 제공자를 가족, 교사, 또래로 제시하였다(Dubow & Ulman, 1989). 지지유형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한미현, 1996),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정도와 사회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박지원, 1985).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성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대부분 가정과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 내에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제한된 사회적 지지자를 갖게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 지지자들은

주로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 친구, 교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0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이영주, 2007)에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현영(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활동적이지만, 학습관련영역에 있어서는 보통정도의 적응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가족, 교사 지지 등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지적일수록,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다문화 적응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학교생활에 있어 선생님의 관심과 또래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나 언어에서 뒤떨어지는 부적응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서정혜(2009)는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 친구, 교사 지지 모두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각각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인 박민서(2007)는 사회적 지지 중 교사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가족 지지보다 2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은미(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국적, 이중문화 특성,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아동 자신의 이중문화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사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임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교사 지지)와 학교생활적응(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관계, 규칙준수 관계, 학교행사 관계) 중 학습활동 관계와 친구 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정, 2007).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비교 연구한 전푸르나(2010)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관계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의 관계가 일반 가정 자녀 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박민서, 2007; 안은미, 2007; 정현영, 2006; 재갈중기, 2007)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전 학년(1~6)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민서(2007)와 고학년(4~6)을 중심으로 연구한 안은미(2007)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다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혔다. 정현영(200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다문화적 특성(신체적, 언어적)에 대한 적응도가 낮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 중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갈중기(2007)는 다문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체계, 주요타인(또래, 교사)과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향상을 위해 개인적 특성,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적응, 주요타인의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와 G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 177명(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10명의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시행 후, 저학년의 다문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009년 11월에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취학현황을 사전조사 한 후, 대상 초등학교의 다문화 아동 담당 교사에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5개 학교에 197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79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7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1) 다문화 적응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문화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안은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8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적응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적 특성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결과, 1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다문화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66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Dubow &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와 박지원(1996)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이경주(1997)의 척도를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지원은 가족, 친구, 교사 지지로 9문항, 지지유형은 정서적, 정보적, 자존감, 물질적 지지로 9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결과, 지지원은 3요인(가족, 친구, 교사 지지)으로, 지지유형은 2요인(자존 및 정보, 정서 및 물질 지지)으로 추출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족 지지 .67, 친구 지지 .67, 교사 지지 .62, 자존 및 정보 지지 .77, 정서 및 물질 지지 .70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측정을 위해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요인분석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결과 2요인(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태도)으로 추출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교흥미도 .73, 학교규범준수태도 .64, 전체학교적응 .7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이 지각한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아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2.10, p<.05, t=-2.18, p<.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2.13, p<.05, t=2.27, p<.05$), 핵가족의 아동이 확대가족 아동보다 학교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75, p<.05, F=2.87, p<.05$).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에서는 어머니 국적이 태국인 응답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인 응답자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 학년, 거주지, 부모의 학력,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교규범준수태도는 어떠한 변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원, 지지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원, 지지유형 간에는 정적인 상관($r=.13\sim.6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적응,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자존 및 정보 지지, 정서 및 물질 지지, 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교흥미도의 경우 교사 지지($\beta=.34,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흥미도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22%였다.

학교규범준수태도의 경우 친구 지지($\beta=.42, p<.001$)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은 다문화 적응($\beta=.24, p<.001$), 교사 지지($\beta=.18, p<.01$)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 지지, 다문화 적응,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89(50.3)	가족형태	핵가족	123(69.5)
	여자	87(49.2)		확대가족	48(27.1)
학년	저학년(1~3)	101(57.1)	부취업	있다	140(79.1)
	고학년(4~6)	75(42.3)		없다	32(18.1)
거주지	도시	30(16.9)	모취업	있다	102(57.6)
	농·어촌	147(83.1)		없다	69(39.0)
모출신국가	중국	54(30.5)	부학력	중학졸업 이하	25(14.1)
	일본	73(41.2)		고등졸업	81(45.8)
	필리핀	32(18.1)		대학졸업 이상	49(27.7)
	베트남	11(6.2)	모학력	중학졸업 이하	13(7.3)
	태국	4(2.3)		고등졸업	72(40.7)
	기타	2(1.1)		대학졸업 이상	69(39.0)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변 인	구분(N)	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	전체학교적응
		M(SD)	M(SD)	M(SD)
성 별	남(89)	3.61(.77)	3.57(.71)	3.60(.64)
	여(87)	3.85(.72)	3.73(.99)	3.81(.63)
	t값	-2.10*	-1.23	-2.18**
학 년	저학년(101)	3.92(.75)	3.74(.96)	3.86(.62)
	고학년(75)	3.81(.84)	3.63(1.21)	3.74(.76)
	t값	.56	.44	.67
거주지	도시(30)	3.90(.71)	3.80(.63)	3.86(.55)
	농·어촌(147)	3.69(.76)	3.62(.89)	3.66(.65)
	t값	1.39	1.07	1.56
가족형태	핵가족(123)	3.82(.74)	3.68(.70)	3.77(.62)
	확대가족(48)	3.54(.78)	3.49(.88)	3.52(.64)
	t값	2.13*	1.46	2.27*
모출신국	중국(54)	3.59(.67)	3.51(.68)	3.56(.56)
	일본(73)	3.72(.77)	3.65(.66)	3.69(.63)
	필리핀(32)	4.04(.76)	3.85(1.37)	3.97(.69)
	베트남(11)	3.25(.66)	3.55(.56)	3.36(.48)
	태국(4)	4.15(.87)	3.92(1.13)	4.06(.94)
	기타(2)	4.60(.57)	4.33(.94)	4.50(.71)
	F값	2.75*	.94	2.87*
부학력	중졸 이하(25)	3.72(.81)	3.40(.96)	3.60(.68)
	고등졸업(81)	3.68(.77)	3.67(.72)	3.68(.66)
	대졸 이상(49)	3.72(.75)	3.75(.74)	3.73(.62)
	F값	.51	.94	.48
모학력	중졸 이하(13)	3.78(.67)	3.49(.78)	3.67(.63)
	고등졸업(72)	3.73(.81)	3.63(.79)	3.69(.67)
	대졸 이상(69)	3.66(.75)	3.69(.77)	3.67(.64)
	F값	.51	.21	.21
부취업	있다(140)	3.70(.78)	3.62(.75)	3.67(.65)
	없다(32)	3.88(.65)	3.80(1.23)	3.85(.60)
	t값	-1.20	-1.06	-1.42
모취업	있다(102)	3.73(.75)	3.70(.91)	3.72(.63)
	없다(69)	3.73(.78)	3.60(.79)	3.68(.67)
	t값	.06	.71	.40

*p<.05, **p<.01

학교규범준수태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범준수태도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2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교적응의 경우 교사 지지($\beta=.34, p<.001$)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친구 지지($\beta=.29, p<.001$),

다문화 적응($\beta=.20, p<.01$)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지지, 친구 지지, 다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전체학교적응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학교적응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4%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1.00							
2	.30**	1.00						
3	.32**	.38**	1.00					
4	.14	.22**	.19*	1.00				
5	.18*	.32**	.26**	.32**	1.00			
6	.35**	.44**	.35**	.30**	.60**	1.00		
7	.21**	.26**	.24**	.41**	.23**	.24**	1.00	
8	.34**	.46**	.17*	.26**	.13	.17*	.27**	1.00

*p<.05, **p<.01

1: 다문화 적응 2: 가족지지 3: 친구지지 4: 교사지지 5: 자존 및 정보지지 6: 정서 및 물질지지 7: 학교흥미도 8: 학교규범준수태도

<표 4> 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태도, 전체학교적응의 영향요인

구 분	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		전체학교적응			
	B	β	B	β	B	β		
다문화 적응	.10	.10	.28	.24***	.17	.20**		
사회적 지지	지지원	가족지지	.09	.10	-.04	-.04	.05	
		친구지지	.09	.11	.42***	.42***	.29***	
		교사지지	.34	.34***	.20	.18**	.34***	
	지지 유형	자존 및 정보지지	.05	.06	-.02	-.02	.02	.03
		정서 및 물질지지	-.02	-.08	-.13	-.12	-.06	-.07
	R ²	.22		.29		.34		
	F	8.00***		11.64***		14.28***		

p<.01,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흥미도의 경우 교사 지지, 학교규범준수태도의 경우 친구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흥미도의 22%, 학교규범준수태도의 29%, 전체학교적응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가족형태에 따라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 대한 흥미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또래의 남학생 보다 비교적 더 침착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등 여학생 특유의 친화적인 성격이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신효선, 2008; 이영주, 2007; 이지애, 2007; 정윤정, 2007)과 유사하나, 안은미(2007)와 연소이(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다.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의 아동이 확대가족의 아동보다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생활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유미(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미숙으로 아동에게 학습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정서적 지지와 안정된 관계형성 및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비록 이중문화로 인한 양육방식차이로 약간의 갈등도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어느 가정의 부모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연구결과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도가 핵가족의 아동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들은 중간정도의 정적인 상관($r=.13\sim.6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적응, 지지원(가족, 친구, 교사 지지), 지지유형(자존 및 정보, 정서 및 물질 지지)은 각각의 변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흥미도와 학교규범준수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 지지와 학교흥미도, 친구 지지와 학교규범준수태도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셋째, 다문화 적응, 친구 지지, 교사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적응, 친구,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규범준수태도와 전체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안은미(2007), 박샤론(2010)의 연구와 다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이 친구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만족을 하고 적응을 더 잘한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들을 지지해주고 있다(박은혜, 2010; 서정혜, 2009; 신혜정, 2007; 정현영, 2006; 제갈종기, 2007). 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친구와 정서적 친밀감, 일체감을 느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자신들의 다문화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또래에 대한 가치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또래관계를 학교생활적응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 바르게 형성된 또래관계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성장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므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응집력 강화, 또래관계 개선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지지였는데, 박민서(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교사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가족 지지보다 2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아동이 교사로부터 받은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고유미, 2009; 김경란, 2007; 이영주, 2007; 이운호, 2009; 전푸르나, 2010)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아동에게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결과로, 학령기

동안 학교가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고, 교사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 이를 통해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형성하게 도움을 주므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교사의 칭찬과 관심 등 긍정적인 지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 지지로 나타났음을 볼 때, 학교의 제도적 노력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수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일반 가정 아동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특성 이해 및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친구가 지지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범 교육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다양성 인정, 존중, 다문화 가정 아동을 나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같은 동료이자 친구로 인식을 하고 포용, 지지한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래 멘토링, 놀이로 함께하는 또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 등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 구성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준수해야하는 규칙과 규범을 지도할 학교규범교육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

넷째,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수업 외의 다른 학교업무 등으로 수업과 학생에게만 지원과 관심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인턴교사들을 활용함으로써 담임교사들이 온전히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사랑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D와 G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표집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형태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들 간의 차이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한정시켰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 아동을 함께 연구해 결과를 비교한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어 이들을 위한 개입을 하는 데에 있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각 발달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징과 어려움을 살펴보는 종단적인 연구와 참여관찰이나 면접 등의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어 다각적이고 심도 깊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문제의 초점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점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유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외국인 어머니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9).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중(2007). 초등학교원의 사기저해요인의 분석을 통한 근무 의욕 제고 방안 : 전라남도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매일경제(2009. 02. 16). 다문화가정 자녀 70% 고교교육 못 받아.
- 문은식(2005).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발전논집(충남대학교), 147-162.
- 박민서(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사론(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백종진(2008).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혜(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선(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소이(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 및 문화적응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간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2(3), 61-83.
- 이정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애(2007).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푸르나(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2007). 결혼 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제갈종기(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희(2007).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통계청(2009). 혼인통계결과.

한국일보(2009. 09. 09). 다문화가정 올바른 인식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정애(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과정분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정미(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derson, M. (1999). Children in-between :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bicultural family. *Journal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1), 13-26.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ubow, E. & Ulman, D.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3-64.

Thoits, P.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접수일 : 2011년 01월 11일
- 심사일 : 2011년 0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15일